

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실행 논의와 결과

박 레 경*

-
- | | |
|----------------------------|--------------------------------------|
| 1. 머리말 | 2) 조선시대 국장에서 朝祖儀 실행 논의 |
| 2. 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실행 논의 | 3. 규장각소장 國葬·殯殿都監儀軌에서 본 朝祖儀 실행 논의의 결과 |
| 1) 조선시대 歷代 典禮書와 朝祖儀의 등재 문제 | 4. 결론 |
-

초록: 朝祖儀는 죽은 자의 시신을 종묘에 옮겨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인사를 올리도록 하는 의례로서 『儀禮』, 『禮記』 등의 古禮 경전과 『朱子家禮』 등에 기록된, 유교적 喪葬禮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國葬에서 조조의는 國制인 『국조오례의』 등의 전례서에서 제외되었다가 영조 33년에 증편한 『國朝喪禮補編』에서야 비로소 국장의례에 편입되었다. 『국조상례보편』에의 등재는 이미 효종대에서부터 시작된 조조의에 대한 논의들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에 金集은 『儀禮』, 『禮記』 등의 古禮 經文을 근거로 조조의의 제도적 실행을 주장하여 조조의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영조대에 시신이 아닌 神帛만이 종묘에 謁辭하는 절충적 방식의 조조의를 議定하여 『상례보편』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정조대에는 古禮의 원칙과 禮意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져 결국 조조의 실행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조선시대 국장의례는 매번 조조의의 실행 여부를 재의 정해야 하는 미비된 현실로 남았으며, 國葬都監儀軌와 殯殿魂殿都監儀軌의 기록은 실제로 조선시대 국장의례에서 조조의가 한 차례도 실행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실행 논의는 國制의 표준적 양식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식수준이 성숙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선 후기 예학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어: 喪葬禮, 國家典禮, 朝祖儀, 發引, 古禮, 金集, 國葬都監儀軌, 殯殿魂殿都監儀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머리말

조선시대 國家典禮로서의 喪葬禮는 『國朝五禮儀』 등의 국가 전례서에 그 전체적인 의례 절차가 등재되어 國制로서 준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唐의 『開元禮』에서부터 明의 『明集禮』에 이르기까지 천자의 상장례는 臣子로서 말할 바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賑恤과 門疾, 舉哀와 除服 및 臨恤의 의례만을 천자의 흥례로 등재하였고, 상장례에 관해서는 三品이상 六品 이하의 品官에 따른 禮數의 구분 및 의절의 개요만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¹⁾ 조선은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의 예를 준행할 것을 표방하였지만, 國制로서의 國朝禮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王朝禮로서의 위격을 갖추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러한 노력들은 五禮儀의 전 영역에 걸쳐서 건실한 성과들로 나타났고, 凶禮의 상장례 역시 古今 内外의 禮制에 대한 연구와 예학적 논의들을 거쳐 나름의 완성된 형태를 조형해가는 결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국가 전례서에 등재된 국장의례의 각 의례 절차와 정비된 儀註의 기록들은 동아시아 전례 문헌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朝祖儀는 祖廟에 알현한다는 뜻으로²⁾ 古禮에서 입관된 시신이 사당(종묘)의 조상에게 나아가 영결을 고하는 의식³⁾이다. 『朱子家禮』에는 發引 하루 전에 영구를 모시고 조상을 뵈는 의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⁴⁾ 조선시대 國恤에서는 啓殯儀에서 發引儀 사이에 거행되는 의례 절차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凶禮 儀註의 마련은, 『五禮儀』를 편찬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되었던 『開元禮』나 『明集禮』로부터 참고할 바가 吉·軍·賓·嘉禮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朝祖儀의 경우도, 중국의 전례서에서는 왕조례로서의 국장의례 자체는 기록된 바가 없었고 品官喪儀를 기록한 데에서도 조조의는 제외되어

1) 『明集禮』 권36, 凶禮, 總敘.

2) 『禮記』 『檀弓下』, 孔穎達 疏 “喪之祖也者, 謂將葬前, 以柩朝廟者.”

3) 『儀禮』 『士喪禮』에서는 重(임시 신주)과 奠을 앞세우고 燭을 밝히면서 軸의 기구를 사용하여 棺을 祖廟로 옮기는 朝祖儀의 의식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遷于祖, 用軸. 重先, 奠從, 燭從, 柩從, 燭從, 主人從.”

4) 『朱子家禮』 권4, 喪禮 “發引前一日, 因朝奠, 以遷柩告. 奉柩朝於祖.”

있었기 때문에 『五禮儀』를 편찬할 당시에는 해당 의례를 실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를 넘어서서 전례의 실행과 예학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古禮에 기초한 국가전례의 보완과 수정이 활발해지면서, 朝祖儀의 실행 문제가 국장의례의 정비에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된 것이다.

조선시대 朝祖儀의 실행 문제는 국가전례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국장의례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古禮와 관련된 예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상장례의 올바른 禮意를 구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할 주제임에도 조선시대 의례 연구에서 주의조차 기울여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가 목표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역대 전례서의 흥례 부문에서 조조의가 어떻게 등재되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조선시대 국장의례에서 조조의의 위치를 살펴보고, 조조의의 전례서 등재와 실행을 둘러싼 역대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그 문제의 소재와 예학적 논의들을 정리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조의의 실행이 議定되던 시기에 일어난 國喪에서 실제로 어떻게 국장의례가 실행되었는지 해당 시기의 國葬都監儀軌와 殯殿魂殿都監儀軌의 기록을 검토하여 그 실행 실태를 밝힘으로써 조조의 실행 논의의 실질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조조의의 전례서 등재 문제와 예학적 논쟁, 그리고 현실적인 실행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이후의 심화된 연구들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17세기 이후 조선시대 예학 연구에서의 의미 및 예송과의 연관성과 이를 둘러싼 관련 禮書들과의 심층적인 맥락 등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조조의의 논의를 제기했던 金集의 예학이 國制인 國家典禮에 대한 사대부들의 비판과 개정 요구를 본격화한 것으로서 이후 예송의 전례 논쟁에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조조의 논의의 예경학적 토대들에 대한 성찰과 논의에 대한 폭넓은 예학적 접근들은 조선시대 국가전례의 성격과 완성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실행 논의

1) 조선시대 歷代 典禮書와 朝祖儀의 등재 문제

國葬儀禮는 『國朝五禮儀』 凶禮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크게 세 단

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한 시점인 初終으로부터 시신을 수습하여 殯所에 안치하는 단계로, 初終-復-易服不食-戒令-沐浴-襲-奠-爲位哭-舉臨-含-設水-靈座-銘旌-告社廟-小斂-奠-治椁-大斂-奠-成殯-奠-廬次-成服-服制-嗣位-頒教書-告訃/請諡/請承襲-朝夕哭奠及上食儀-朔望奠-議政府率百官進香儀-治葬-請諡宗廟儀-上諡冊寶儀의 의례들이 해당된다. 초종에서 성빈까지는 시신을 엄습하여 빈궁에 안치하는 과정이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복을 갖추고 새 왕이 왕위를 계승하며, 奠祭를 올리고 무덤을 준비하며, 죽은 사람에게 시호를 지어 올리는 과정들이다.

둘째는 승하한 지 5개월째에 빈소를 열고 梓宮⁵⁾을 꺼내서 장지를 향해 출발하여 장지에 매장할 때까지의 단계로서, 啓殯儀-祖奠儀-遣奠儀-發引班次-發引儀-路祭儀-遷奠儀-立主奠儀의 의례가 해당된다.

셋째는 궁궐로 돌아와 신주[虞主]를 魂殿에 모셨다가 1년 후에 小祥을 지내고 신주를 새신주[練主]로 바꾸며, 2년째 되는 날에 禫祭를 지내고, 3년상을 마치고는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단계이다. 返虞班次-返虞儀-安陵奠儀-山陵朝夕上食儀-魂殿虞祭儀-卒哭祭儀-魂殿朝夕上食儀-魂殿四時及臘日親享儀-魂殿俗節及朔望親享儀-四時及臘俗節朔望享山陵儀-親享山陵儀-迎賜諡祭及弔膊儀-賜膊儀-賜諡儀-焚黃儀-賜祭儀-練祭儀-祥祭儀-禫祭儀-祔廟儀-題位版儀-祔文昭殿儀 등의 의례가 해당된다.

이 중 둘째 단계에 해당하는 계빈의에서 입주전의까지는 시신이 자신의 집을 나서서 장지로 길을 떠나 매장되는 과정으로서, 상장례의 상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의례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빈소를 열고 관을 꺼내는 계빈의를 거치면 길 떠나기에 앞서 奠祭를 올리는 조전의를 행하고, 다음날 발인 직전에 문 앞에서 제전을 올리는 견전의를 행한 뒤 발인의 행렬을 갖추어 장지로 향해가는 발인의를 거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노제의를 지내고 장지에 도착하여 매장하기 위해 영구를 옮길 때 천전의를 지낸다. 매장 후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비단으로 만든 임시 신주인 魂帛(神帛) 대신에 새로 虞主⁶⁾를 만들어 奠祭를 올리는 입주전의를 거행함으로써 주요 장례 절차는 일단락된다. 국장의 엄숙함과 성대함을 내외에 현시하는 것이 바로 발인의 반차 행렬이기 때문에 재궁이 빈소를 나와 장지로 가

5) 국왕이나 왕비 등의 관.

6) 시신을 매장한 후에는 뽕나무로 만들어진 虞主를 小祥(練祭) 때까지 사용하고, 소상 후에는 밤나무로 만들어진 練主를 사용하다가 禫祭 후에 종묘에 안치한다.

는 이 단계가 국장의례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빈의와 조전의 사이에 있어야 할 朝祖의 의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朝祖儀는 빈소의 櫨宮⁷⁾을 열고 재궁을 꺼내는 啓殯儀를 거행한 뒤에 재궁이 宗廟에 가서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의례이고, 祖奠儀는 이 朝祖의 의식이 끝난 뒤에 올리는 奠祭이다. 조조의례를 통해 조상을 뵈고 謁辭를 마친 시신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 발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이가 생전에 거처하던 집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삶을 마치고 장지로 떠나가는 큰 변화를 조상에게 고하고 하직하는 과정이므로 유교적 喪葬禮의 전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담은 의례 절차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 의절의 상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국장에서 朝祖儀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조선 전기의 국가전례서에 등재되지 않았다. 세종대에 편찬된 『五禮』 ‘凶禮儀式’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어서 성종 5년(1474)에 반행되어 조선시대 국가전례의 典範이 된 『國朝五禮儀』 ‘凶禮’에서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들 전례서에 따르면 국가의 상장례는 啓殯儀 이후 朝祖儀 없이 祖奠儀를 올리고 발인하는 날에 遣奠儀를 거쳐 發引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영조 20년(1744)에 『國朝五禮儀』의 미비점과 시대에 따라 달라진 점을 보완한 『國朝續五禮儀』에서도 달라지지 못했다. 영조 28년(1752)에 『國朝續五禮儀』 이후 喪禮에 대한 새로운 受敎들을 增補하여 간행한 뒤, 다시 영조 33년(1757)에 증편한 『國朝喪禮補編』에서야 조조의례는 비로소 국장의례에 편입된다. 전례서의 증보, 특히 상례서의 정비는 조선의 의례를 분명히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영조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受敎, 儀軌, 續儀(續五禮儀) 등으로 각 의식 절차의 준행 근거를 구분하여 명시해놓은 『國朝喪禮補編』의 기록과 『實錄』의 기록 등에 따르면, 조조의례도 역시 영조의 受敎에 의해 비로소 국장의례로 실행의 준거를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國朝喪禮補編』에 등재된 조조의례의 구체적인 의례 형태[儀註]를 보면, 재궁은 빈전의 外殿에까지만 나가서 머물고, 神帛輦만이 종묘에 나아가 하직을 아뢰는 형식이었다. 즉, 大祝이 神帛이 들어있는 함을 輦[가마]에 모시고 誥命, 諡冊, 諡寶, 哀冊을 실은 여와 靈座, 銘旌을 차례로 인도해 나가고, 재궁을 輪輦 위에 모시고 외전에 나아가면 상하가 곡하며 따른다. 신백연이 떠나면 전하가 次所에 나가

7) 찬궁은 빈소에서 재궁을 임시로 안치해 두는 곳을 말한다.

서 맞이하고 대군 이하 백관들이 시위한다. 신백연이 종묘에 이르면 관원을 보내어 신백을 받들어 廟廷의 자리에 모시고, 섭좌통례가 某號 大王이 謁辭함을 아뢰고 영녕전에 나아가서 알사를 위와 같이 하며, 돌아와서 외전에 나아가면 전하가 공경히 맞이하여 영좌에 모시는 것이다.⁸⁾ 이러한 조조의는 시신이 들어있는 재궁은 종묘에 가지 않고 상례 중에 神主를 대신하는 神帛만이 종묘에 가서 뵈고 하직 인사를 하는 형태이다.

『國朝喪禮補編』의 조조의 마련은 영조의 의지에 힘입은 바 크지만, 효종조부터 시작된 조조의에 관한 문제 제기와 古禮에 대한 무수한 논의들이 뒷받침된 것이었다. 따라서 영조대에 와서 어렵게 마련된 조조의는 조선시대 국장의례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정조 12년(1788)에 편찬된 『春官通考』 凶禮에서 啓殯의 의식에 이어 補編의 朝祖儀가 기록됨으로써 조조의는 오례의 전례서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조선시대 상장례는 典禮書 상으로는 보아서는 비로소 정비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궁은 외전에 머물고 신백연만이 종묘에 나아갔다가 빈전으로 되돌아오는 의례 형태는 시신이 직접 종묘에 나아가 하직을 고하는 古禮의 원형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었고, 그런 만큼 異論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조조의의 전례서 등재와 설행을 둘러싼 논의는 효종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영조대에 일단락되었지만 정조대에 이르러 그 근본에서부터 재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조상례보편』의 조조의가 마련되는데 근거가 되었던 의례적 전거들이 古禮의 형식과 禮意를 갖대로 하여 전면적으로 재평가되거나 회의의 대상이 됨으로써 조선시대 국장의례에서 조조의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맞고 만다. 따라서 전례서에 의례가 등재되고서도 그 실행이 지난하기만 했던 조선시대 국장의 조조의 실행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조의를 둘러싼 역대의 예측적, 실무적 논의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조선시대 국장에서 朝祖儀 실행 논의

(1) 효종대의 조조의 실행 논의

조선시대 국가전례의 典範인 『國朝五禮儀』에 조조의가 없는 것 대해서 문제를

8) 『國朝喪禮補編』 권2, 朝祖儀 儀註.

제기한 것은 효종 원년(1650)에 공조참판이던 慎獨齋 金集(1574~1656)이었다. 부친인 沙溪 金長生의 예학을 계승하여 주자가례는 물론 古禮에 밝았던 그는 國制인 『오례의』가 唐의 『開元禮』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작은 것은 채기면서도 큰 것을 빠뜨리거나, 형식에 급하여 내용을 등한시한 것이 많아서 禮를 아는 자들이 병통으로 여긴 지 오래라고 비판하고, 옛 제도의 인습과 견제에 구애된 잘못된 國制의 관례를 개혁해서 古禮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김집은 『古今喪禮異同』⁹⁾을 지어 올렸는데, 각 조항마다 먼저 『儀禮』, 『禮記』 등 禮經에 실린 古禮와 『家禮』 등을 위주로 하고, 다음에 『오례의』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언급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붙여 訂正하거나 다른 禮書를 상고해 선택해서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는 〈陳朝祖奠〉條에서 조조의례를 國制로서 실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禮에 ‘喪柩를 조상의 종묘로 옮겨 망인이 조상을 뵈게 하는 것은 망인의 효심을 따르는 것이니 망인의 처지에서 보면 평소 거처하던 침실을 떠나는 것이 슬프다. 그러므로 祖考의 종묘에 가서 결별하고서 떠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예의 큰 절목으로서 폐할 수 없는 것인데 國制에는 없으니 아마도 강구해 행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 定制로 삼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¹⁰⁾

그는 『禮記』를 근거로, 조조의례란 죽은 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는 슬픈 마음에 조상이 계시는 종묘에 가서 뵈는 것이고, 조조의례를 행하는 것은 망자의 그 孝心을 헤아려서 거행하는 것¹¹⁾이라고 禮意를 밝히고, 그러한 예의를 담고 있는 의례인 만큼 조조의례는 상장례의 큰 절목이라고 평가하고 마땅히 강론을 거쳐서 제도로서 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祖奠〉條에서, 현재 朝祖儀 없이 이루어지는 祖奠儀의 문제점을 비판하

9) 慎獨齋 金集(1574~1656)의 『古今喪禮異同議』는 『疑禮問解續』에 附錄되어 있다. 『疑禮問解續』은 김집이 부친 沙溪 金長生이 편찬한 『疑禮問解』을 補遺한 것이다. 아래의 『古今喪禮異同』의 문장들은 『實錄』에서 인용하였다. 『고금상례이동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60개 항목의 개선 사항과 『國朝五禮儀』와의 내용 비교는 韓基範, 1991 『慎獨齋의 禮說과 禮學思想』, 『慎獨齋思想研究』, 115-119와 李範稷, 1991 『慎獨齋의 國家典禮와 그 思想』, 『慎獨齋思想研究』, 166-167면의 표 참조.

10) 『孝宗實錄』 권1, 孝宗 卽位年 6월 壬子(24일). 이 내용은 『增補文獻備考』 권68, 『禮考』 15 〈國恤〉 4 葬制에도 보인다.

11) 『禮記』 『檀弓下』 “喪之朝也, 順死者之孝心也. 其哀離其室也. 故至於祖考之廟而后行.”

었다.

“국제에 비록 이 의전[조전의]이 있으나 이미 朝祖에 관한 절목이 없으므로 이 의전을 殯殿에서 시행하고서 그대로 발인하니 매우 먼 길을 가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古禮에는 朝祖의 의전이 있고, 이어 祖奠을 廟庭에서 행하고, 이튿날 새벽에 遣奠을 행하고서 발인합니다. 발인 절차는 『儀禮』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¹²⁾

김집의 지적은 조조의가 없음으로 해서 조전의가 종묘의 딸이 아닌 빈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장례의 근본적인 禮意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계빈에서 발인에 이르는 과정은 『禮記』의 “창 밑에서 飯을 하고, 戶에서 小斂을 하고, 阼階에서 大斂을 하고, 客位에서 殯을 하고, 庭에서 祖奠을 진설하고, 墓에 매장하는 것은 점차 멀리 떠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喪事에 나아감은 있으나 물러남은 없다.”¹³⁾는 禮意를 구현하는 과정인데, 현행 국제에서는 종묘에서 행해야 할 조조의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조의를 거행한 뒤에 종묘 뜰에서 거행해야 할 조전의 역시 종묘보다 이전 공간인 빈전으로 옮겨져 거행되고 있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집은 『儀禮』를 근거로, 빈전에서 계빈을 한 뒤에 종묘로 옮겨 조조의를 거행하고 조전의를 행한 뒤에 발인이 시작되는 의식 절차를 古禮의 형태라고 보았다. 『儀禮』 『既夕禮』에 따르면, 啓殯을 하기 전날 저녁에 哭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관을 祖廟로 옮겨서 두 기둥 사이에 관을 놓아 조상을 뵈게 하는 朝祖의 예를 거행하고 나서야¹⁴⁾ 발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집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본격적인 의론에 부쳐져, 좌의정이던 白軒 李景奭(1595~1671)의 헌의로 이어진다. 이경석은 김집이 제시한 古禮, 즉 『儀禮』의 내용을 자세히 상고하여 고례를 그대로 재현하여 행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를 밝힘으로써, 현행 『오례의』가 조조의를 빼놓고 조전의만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에는 이미 빈소와 종묘가 분리되어, 계빈, 조

12) 『孝宗實錄』 권1, 孝宗 卽位年 6월 壬子(24일).

13) 『禮記』 『檀弓上』 “飯於牖下, 小斂於戶內, 大斂於阼, 殯於客位, 祖於庭, 葬於墓, 所以卽遠也, 故喪事有進而無退.”

14) 『儀禮』 『既夕禮』 “既夕哭, 請啓期, 告于賓. 夙興, 設盥于祖廟門外, … 遷于祖, 用軸 … 正柩于兩楹間, 用夷床.”

조, 조전, 발인의 과정이 모두 종묘에서 거행되던 고대와는 의례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묘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각각의 의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면서 공간적으로도 차례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빈전에서 나온 재궁이 종묘에서 조조의의를 행한 다음에 그곳에서 밤을 지낼 수 없고 다시 빈전으로 돌아와 다음날 발인을 해야 하는 현실은 점차 멀리 떠남을 상징하는 의례의 공간 이동을 어기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거행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례의』에서 조조의의에 관한 절목을 세우지 못하고 闕해 두었다고 보는 것이다.¹⁵⁾

이경석의 주장은 영돈녕부사이던 淸陰 金尙憲(1570~1652)과 우의정이던 陽坡鄭太和(1602~1673) 등의 『오례의』를 지지하는 설들로 이어진다. 즉 김상헌은 『오례의』가 선왕 세대에 전해오는 옛 풍속으로서 禮文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대로 통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치지 않은 것은 放失된 것이 많은 옛 예의들을 함부로 고치지 않고자 하는 뜻인 만큼,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강론과 자세한 처리를 기다려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을 상소하였다.¹⁶⁾ 정태화 역시 김집이 오로지 고례를 회복하려는 데만 뜻을 주로 하였음을 지적하고, 조종조에서도 함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경솔하게 『오례의』를 변경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였다.¹⁷⁾

결국 이들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집의 상소에 대한 예조의 논의가 상주되었는데, 예조의 결론은 人情에 연유하여 禮文을 세우고 시대에 따라 알맞게 제정하는 것이 예의 본의인 만큼 예의 개정과 준수 모두 인정을 따라야 하므로, 고례와 달라진 공간 현실 속에서 고례를 강행하는 것은 인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¹⁸⁾ 이로써 김집의 정확한 고례 이해에 근거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던 조조의 실행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오례의』에서 조조의가 제외되어야 했던 현실적인 제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古今喪禮異同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전례에 대한 개혁과 보완은 김집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17세기 내내 추진되는데 고례의 이념을 준거로 한 이러한 노력은 조선성리학이 예학에서도 송대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며¹⁹⁾ 國制에

15) 『孝宗實錄』 권1, 孝宗 卽位年 6月 壬子(24일).

16) 『孝宗實錄』 권1, 孝宗 卽位年 6月 壬子(24일).

17) 『孝宗實錄』 권1, 孝宗 卽位年 6月 壬子(24일).

18) 『孝宗實錄』 권1, 孝宗 卽位年 6月 壬子(24일).

있어서 표준적 양식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식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집의 발의를 둘러싼 논의는 영조대에 이르러 고례를 조선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예제 제정 논의로 본격화된다.

(2) 영조대의 조조의 설행 논의

효종조의 논의에서 조조의의 고례적 근거들을 확인함으로써 그 의미와 중요성이 인식되었지만, 고대 중국과 조선의 서로 달라진 의례 공간이 제약 조건이 되어 그 실행은 좌절되었다. 그것은 시신이 있는 재궁을 종묘에 옮겨 망자의 효심을 완성하게 하자면, 빈소에서 종묘를 거쳐 대문을 나가 발인을 함으로써 시공간 상으로 차차 멀어져가는 의례 형식을 어길 수밖에 없는, 예론과 현실 사이에서 빚어진 딜레마 때문이었다.

조조의의 설행은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조조의 논의는 영조대에 재연되었다. 영조 33년 영조의 元妃였던 貞聖王后와 숙종의 繼妃였던 仁元王后가 잇달아 승하하자, 국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비했던 상장례의 절차들에 대한 여러 논의가 시작되었다. 영조 33년 10월에 『喪禮補編』의 校正官이던 老雲軒 成天柱(1712~1779)가 명나라 조정의 喪禮에 朝祖의 절차가 있었음을 헌주한 것을 계기로 조조의의 설행에 관한 논의도 재연되었는데, 논의의 핵심은 효종대에 드러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에 영조는 다음과 같이 조조의의 절충적 시행을 결심하였다.

“지금 만약 재궁을 朝祖하게 한 뒤에 본래의 곳(빈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진실로 나아갔다가 물러나게 하는 혐의가 있다. 神帛으로써 널을 대신한다면 널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니, 어찌 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7월 因山 때에 실은 創行하려고 하였으나, 나의 先君께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감히 前後에 예를 달리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구애될 바가 없다.”²⁰⁾

영조가 제안한 것은 재궁은 빈전에 그대로 두고, 신백만이 재궁을 대신하여 종

19) 李俸珪, 1998 『金長生·金集의 禮學과 元宗追崇論爭의 철학사적 의미』 『韓國思想史學』 제11집, 228-250면. 이 연구에서 이봉규는 조선 후기의 전례문제를 기호학파가 주도적으로 주관하게 된 것도 바로 김장생과 김집에서 이루어진 예학적 성과가 그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20) 『英祖實錄』 권90, 英祖 33년 10월 己巳(10일).

묘에 謁辭하는 방식으로 조조의례를 거행하는 것이다. 신백은 죽은 이의 魂이 의지하는 것으로서, 장례 후에 정식으로 종묘에 안치될 神主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흰 비단으로써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제 재궁은 본래 자리에 두고 망자의 혼이 의지하고 있는 신백만을 종묘에 옮겨 알사를 한다면, “상사는 나아감은 있으나 물러남은 없다.”는 고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상에게 삶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중요한 의례 절차를 결하지 않을 수 있는 절묘한 절충안인 셈이다. 영조는 조조의례를 인원왕후의 7월 인산 때에 설행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선례가 없는 일을 선뜻 시행치 못하다가, 명나라 조정의 喪禮에 신백으로 朝祖하는 절차가 있다는 성천주의 헌의에 힘입어 조조의례를 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영조의 절충안은 좌의정이던 霞溪 金尙魯(1702~?)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는 발인 하루 전에 재궁을 모시고 外殿에 나아가고, 이어서 신백을 앞서 출발시켜 태묘에서 朝祖를 행하게 하고 돌아와 祖奠을 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²¹⁾ 영조는 김상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예조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절들을 商確하게 하여 『상례보편』에 싣도록 명하였다. 영조가 조선시대 상장례에서 결여되었던 조조의례의 의주를 마련하고 그 설행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 상장례에서 조조의례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지만, 실무적으로 의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실질적인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大明會典』과 丘濬(1420~1495)의 『文公家禮儀節』이다.

“조조에 이르러서는 이미 『大明會典』에 실렸으며 또한 丘濬의 儀節에도 있으므로, 여러 대신들과 在外儒臣에게 물어 본 것이다. 神帛이 조조하는 것은 곧 文皇帝의 大恤 때에 이미 행한 예이고 丘氏가 창론한 것이 아니다. 비록 신백을 받들고 행례를 하더라도 재궁은 殯殿에 있으니 역시 나아갔다가 물러갔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영부사의 의논에 ‘永歸할 體魄으로 하직 인사를 하지 않고 返室할 魂帛으로만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은 持難의 단서가 된다.’고 하였으나, 神帛이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재궁의 일을 대신하여 행한 것이니 혐의할 필요가 없다.”²²⁾

『大明會典』에 보이는 祖禮, 즉 朝祖의 절차는 발인하는 당일에 재궁은 端門 밖에 있고 신백만이 太廟로 가서 謁辭하는 방식이다.²³⁾ 이것은 명나라 丘濬이 朱子

21) 『英祖實錄』 권90, 英祖 33년 10월 己巳(10일).

22) 『英祖實錄』 권90, 英祖 33년 10월 己巳(10일).

의 家禮에 주석을 붙인 『文公家禮儀節』에서 주장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는 “영구를 받들어 조상을 뵈는다.”²⁴⁾는 가례 원문에 대해서, 이것은 생전에 尊者에게 아뢰는 것과 같아서 폐할 수 없는 의절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집이 대부분 좁아서 널을 옮기기가 어려우므로 魂帛으로 널을 대신한다면 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주를 달았다.²⁵⁾ 영조는 『大明會典』을 모방한 조조의례를 제안하면서 구준의 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신백은 매장 후에 태워버리지만, 신백에 실려 있던 망자의 魂은 매장 후부터 신주로 사용할 虞主에 다시 실려서 돌아와 안치된다. 따라서 영부사이던 淸沙 金在魯(1682~1759)가 영원히 죽음의 세계로 돌아갈 體魄, 즉 시신은 하직 인사를 하지 않고, 다시 종묘로 돌아올 魂만이 실린 신백[魂帛]만이 종묘에 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영조가 신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재궁의 일을 대신하여 가는 것이라고 변론하였으나, 영조 역시 조선의 궁묘 현실에 맞춘 조조의례가 그 의절에 있어 順便하지 못하고 어그러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조조의례의 시행을 결단한 또 하나의 근거는 古禮에 담겨 있는 禮意였다.

“禮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으로부터 솟아서 생긴 것이겠는가? 그 근본은 바로 人情인 것이다. 이미 인정에 화합되면 예절에도 합당한 것이니, 거기에 무슨 흠결이 있겠는가? … 아! 경자년(숙종 42년)에 喪制를 復古하여 漢唐 시대의 비루함을 모두 씻어 버리고 금년에 이르러서야 『보편』이 장차 완성될 단계인데, 아직도 闕禮된 곳이 있으니, 바로 祔祭와 朝祖 두 가지 일이다. … 아! 부제는 비록 행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스스로 祔廟가 될 것이나 조조는 행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에 행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의절(儀節)이 순편하지 못한 것은 곧 다음 문제이다. 여러 의견을 물으니, 비록 조금 어긋남이 있으나 情理가 이미 이와 같고 예절에도 역시 근거가 있으니, 發靱 전 1일에 재궁을 받들어 外殿으로 나아가서 신백을 받들어 朝祖禮를 행한 뒤에 돌아와 같은 殿에 안치시키고 祖奠을 행한다면 情禮에 이미 遺憾됨이 없고 또한 ‘나아감은 있어도 물러남은 없는’ 도리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

23) 『大明會典』 권96, 禮部 54, 喪禮 1, 洪武 31년, 高皇帝喪禮, ‘祖禮’.

24) 丘濬 輯, 『文公家禮儀節』(奎2275) 권3, 朝祖 “奉柩朝于祖.”

25) 『文公家禮儀節』 권3, 朝祖 “奉柩朝于祖.”의 丘濬 注 “按奉柩朝祖, 象其人平生出必辭尊者也, 固不可廢. 但今人家多狹隘, 難於遷轉轉, 今擬奉魂帛以代柩, 雖非古禮, 蓋但主於必行, 猶愈於不行者與. 若其屋宇寬大者, 自宜如禮.”

이다. 아! 밤을 지나고 올 때의 거등에도 오히려 또한 먼저 가서 고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작별하는데 어찌 빠뜨릴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예조로 하여금 의절을 商確하여 『보편』에 싣도록 하라.”²⁶⁾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자식된 자가 자신의 出入을 부모에게 고는 것은 도덕적 일상이고, 이것이 조상에게로 확대되어 일상의 出入을 비롯한 대소사를 종묘에 고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조조의는 상장례에서 대부분 망자를 보내는 산 자의 입장에서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여타의 의식들과 달리, 망자의 입장에서 이승을 하직하는 의식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人情을 동일시함으로써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조상과의 의례적 삶으로 맺어져 있는 유교적 세계관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영조는 制禮는 人情에 기초한다는 古禮의 정신을 천명함으로써, 시행 상에서 야기되는 의절의 순편치 못함은 조조의가 구현하고자 하는 情理의 根幹에 비해 작은 일로서 처리하고 있다. 조조의의 議定 과정에서 보여준 영조의 절충적인 태도는 『대명회전』과 『문공가례의절』에서 전거를 취하는 방식이나 최종적으로 정리된 의주 형태에서 보듯이 持難하고 구차한 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의의 禮意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현 의지를 통해서 闕禮되어 온 왕조의 상장례를 바로잡고자 한 것은 발전적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예제 제정의 전거를 위해 중국의 조정 의례와 주자 가례의 해석 등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준거는 古禮의 禮意였다는 점에서 선대의 국제 개정 논의의 이념적 방향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정조대의 논의는 외견상 제정된 의례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퇴행을 보여주는 한편, 한층 심화된 예학적 이해들을 드러낸다.

(3) 정조대의 조조의 실행 논의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 즉위년에 조조의의 시행이 논의되었다. 영조대에 조조의를 의정되고 『국조상례보편』에 의주가 등재되어 실행의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조의는 상장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의 논의 결과는 조조의 시행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조오례의』에 따라 영조의 국장을 치르는 것이었다. 조조의 시행의 보류라는 뜻밖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정조의 명에 따

26) 『英祖實錄』 권90, 英祖 33년 10월 己巳(10일).

라 영조대에 마련된 조조의의 절충적 측면들에 대한 원론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때문이었다.

정조는 『상례보편』에 등재된 조조의 의주가 영조의 “효심”에 입각한, “의리에 의해 일으켜 놓은 儀節”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영조대 절충안의 핵심인 魂帛(神帛)만으로 조조의를 행하는 것이 조조의 논의의 핵심인 ‘喪에 관한 일은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물러서지 않는다’와 망자가 몸소 조상을 뵈는다는 禮意들을 적확하게 구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차한 의절로 귀결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논의를 지시하게 된다.²⁷⁾

이에 영의정이던 健庵 金陽澤(1712~1777)은 喪禮에서 조조의 절차를 처음 시행하게 됨에, 事體의 중대성에 비추어 皇朝 때에 ‘신백으로 예를 행한다[神帛行禮]’는 선례를 참조해야겠지만, 조조의의 실행에는 여전히 구차함과 難安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⁸⁾ 이에 반해 좌의정 金尙喆(1712~1791)은 재궁은 발인 하루 전에 봉안해 놓고 魂帛만이 조조의를 행한 뒤에 빈전에 다시 봉안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물러서지는 않는다.’고 한 의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영조가 ‘혼백상자로 하직하는 것이 아니다. 곧 재궁으로 할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혐의스럽게 여길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던 뜻을 받들어 『상례보편』에 따라 국장을 치를 것을 주장하였다.²⁹⁾

그러나 영조대에 議定된 조조의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그것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헤치게 된 것은 우의정이던 陽菴 鄭存謙(1722~1794)에서 시작되었다. 정존겸은 『상례보편』의 조조의를 황조 때에 신백으로 받들고 거행하던 예절을 모방한 것이면서도 시기를 발인하기 하루 전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백이 태실에서 하직하고 나오면 도로 대궐 안에 모시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 禮文의 뜻과 어그러지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정존겸은 황조의 전례에서 발인하는 날에 조조의를 거행했던 방식을 따라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靈駕가 출발한 다음에 조조의 예를 거행하고 바로 발인을 진행한다면 재궁이나 신백이 다시 빈전으로 돌아 밤을 지낸 뒤에 발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재궁과 신백이 모두 조조의에 참여하게 되어 고례에도 부합

27)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28)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29)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한다고 본 것이다.³⁰⁾ 즉, 조조의와 발인의를 같은 날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중추부사이던 膽齊 李滉(1722~1781)은 발인하는 날에 태묘의 앞길에다 영여를 머물러 놓고 조조의 예를 거행하고서 잇달아 출발할 것을, 예조 판서이던 歸泉 徐命善(1728~1791)은 발인하는 날 태묘 앞에 영가를 멈추고서 대신을 보내어 朝廟하는 뜻을 대신 고하게 할 것을 주장하여³¹⁾ 정존겸의 설에 부합하였다.

정존겸 등이 조조의의 시행을 발인하는 날로 조정함으로써 明禮와 일치하고 禮意에도 부합하도록 한 것은 신백만으로 조조의를 행하도록 한 절충안의 구차함을 극복한 것이었으나, 이는 다시 조조의의 시행 일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셈이 되었고 결국 고례에 입각하여 조조의와 발인의를 같은 날에 시행한 『大明會典』 祖禮의 오류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즉, 예조 참판이던 文菴 李宜哲(1703~1778)은 行禮의 편의를 좇아서 조조의를 발인하는 날 시행하는 것이 바른 예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옛적의 예법은 殯宮을 열어 조조의 예를 행할 적에 널을 下載해 놓고 묘정에서 밤을 지내고는 날이 밝아지게 되어서야 드디어 나아갔으니, 이것이 이른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서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大明의 제도로 말하면, 발인하려고 길에 나선 다음에야 비로소 신백으로 조조의 예를 하게 되니, 이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물러서는 것으로서 순서가 倒置되었고, 또 신백으로 널을 대신함은 더욱 예법의 본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저 널은 體魄이 안치된 곳이고, 신백은 魂氣가 깃든 곳인데, 오늘날 신백으로 널을 대신하고 있음은 또 陰陽 屈伸의 이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된 소이는 대개 무서운 棺柩를 내다 놓고 祖廟의 뜰에서 밤을 새우기 어려운 바가 있어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侯王들의 喪事로 말을 하자면, 至尊에서 이하의 百官과 만백성에게까지 편리하지 못한 허다한 사세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백으로 대신하는 예문이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 뒤에 구씨가 따라서 사민(士民)들의 상례에까지 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옛적 禮經의 말도 아니고 朱子의 『家禮』도 아닌 것이니,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이편 저편의 세세하고 자잘한 절차는 체쳐놓고 한결같이 옛적의 예법대로 정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야 일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구애되는 사단도 없게 되는 것이니,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는, 한결같이 『의례』의 예문을 따라 재궁을 받들고 의식대로 朝廟하는

30)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31)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第一義가 될 것입니다.”³²⁾

이의철은 이미 발인하려 나선 길에서 조조를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임을 지적하여 영조가 조조의를 정하는데 근거가 되었던 『대명회전』과 구준의 『문공가례의절』이 올바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조조의의 본래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가장 允當한 방안은 발인하기 전날에 재궁이 직접 종묘에서 조조의를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行禮의 과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현실적 어려움들에 구애된다면 禮意의 구현과 예법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관점을 읽을 수 있다. 결국 신백만으로 조조의를 행하는 방법과 조조의를 발인하려 나서는 길에 거행하는 방법이 모두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자 홍문관에서는 『주자가례』 注에서 ‘만일 단지 혼백만으로 조조의 예를 행하는 것은 또한 넌을 옮겨다 조조의 예를 행하는 본뜻을 잃었으니, 마땅히 『의례』대로 해야 할 듯싶다.’고 한 楊復의 주장을 근거로, 구준이 『문공가례의절』에서 魂帛으로 조조의를 거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판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또한 혼백만으로 조조의 예를 거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원 등이 종묘에 가서 고하거나, 명정으로 조조의 예를 행하는 것 모두가 근거 있는 예법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³³⁾

이로써 영조대에 의정된 『상례보편』의 조조의 의주는 그 근거의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 이에 이의철과 예조참 이던 果菴 宋德相(?~1783)은 『상례보편』의 조조의를 수용할 새로운 예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영조대에 마련한 조조의를 수정하여 준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였다.

먼저, 이의철은 혼백 대신 재궁이 종묘에 나아가 알사를 한 뒤에 다시 빈소로 돌아오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재궁이 종묘에 나아가 알사를 한 뒤에 다시 빈소로 돌아오는 방식이 이미 殷나라 禮에는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재궁이 발인 전날에 조조를 하고 다시 빈소로 돌아와 발인을 기다리는 것이 ‘상사에서는 나아가기는 하나 물러나지는 않는다.’는 고례의 원칙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殷禮에 있었음을 들어 고례에 행례 근거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禮記』에 “殷나라의 예는 종묘

32)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33)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에 가서 뵈고 나서 종묘에 빈소를 차린다.”³⁴⁾고 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는 영조대의 조조의가 논의의 근거로 삼았던 명나라의 예법은 조전보다 조조가 먼저 있고, 발인하는 날에 종묘를 지나가며 조조를 하는 것이 공경스러운 예의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조조의 예를 행하고 다시 빈소로 돌아와 발인을 기다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설 수 없는 고례의 예의에는 완전히 부합치 못한다 해도 공경스러운 예의에는 부합하는 것이며, 조조 후에 빈소를 차렸던 은례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고례의 근거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³⁵⁾ 그가 은례까지 들면서 고례적 근거를 들고자 했던 것에서, 구준의 『문공가례의절』 등과 같이 士庶의 예법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을 가지고 무비판적으로 王朝의 典禮에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엿보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구준의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이의철이 조조와 조전을 한 뒤에 발인을 하는 절차의 고례적 근거를 제시한 데 대하여, 송덕상은 은례 보다는 주자의 『가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이의철과 마찬가지로 재궁이 직접 조조와 조전을 한 뒤에 발인을 하는 방식을 긍정하지만, 재궁이 조조를 한 뒤에 그 곳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빈전 쪽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예학적 근거를 『가례』의 ‘조조의 예를 행한 다음 廳事로 돌아온다.’는 예문에서 찾는다.³⁶⁾ 그 역시 구준의 『가례』 해석, 즉 사세의 편리함을 좇아 혼백만으로 조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주례가 아닌 은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보다는 차라리 『가례』의 경문을 따르는 것이 상례의 큰 예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정조대의 조조의에 대한 헌의는 『상례보편』의 조조의를 마련하는데 근거로 삼았던 『대명회전』과 『문공가례의절』에 대한 고례적 관점에서의 전면적인 비판을 통해서, 혼백 대신 재궁이 직접 조묘에 알사하는 고례의 예의를 회복하는 방식이 주장되었으며, 조선의 궁묘 현실에서 종묘가 아닌 빈소의 외전으로 잠깐 돌아와야 하는 형식에 대한 고례[은례]와 주자 『가례』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세의 편리함 보다는 고례의 立禮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정조는 헌의에 따라 『상례보편』의 조조의 대신 『오례의』에 따라 상례를

34) 『禮記』 『檀弓下』 “殷朝而殯於祖.”

35)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36)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시행할 것을 하교함으로써, 구차스러운 의절, 즉 『상례보편』의 조조의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례의 대법을 지키려던 선대의 뜻을 받들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³⁷⁾ 정조의 이같은 결론은, 구차한 절충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례보편』의 조조의의를 마련했던 영조의 의지와는 반대로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의의 대절을闕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오례의』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은 조조의 없는 국장을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자신의 결정이 영조의 뜻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던 것은 중차대한 예법을 잘못된 근거에 의해 마련된 구차한 의절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失禮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관점에 따른 것이다. 구간스러운 의절을 바로잡고 삭제한 것은 타당한 처사라 할 수 있지만, 결국 정조의 이러한 결정에 의해 이의철과 송덕상 등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던 논의들이 닫혀버리고 조조의 없는 국장으로 회귀된 것은 禮意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기의 논의는 고례의 이념을 준거로 중국 조정 의례의 非禮적 측면을 비판하여 초기처럼 중국 예제가 무조건 국제의 준거로 작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기본적으로 士庶의 예제인 주자 가례를 둘러싼 해석들을 국가전례에 준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식이 보이며, 周禮를 넘어서 殷禮로까지 古禮의 영역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인식이 보이는 등, 고례의 이해와 적용을 둘러싼 매우 유의미한 논의들이 창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하자 조조의 의례는 다시 문제가 된다. 예조에서는 정조의 결정이 조조의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인지에 대한 확인을 갖지 못하고 대신들에게 하문하기를 순조에게 청한다.³⁸⁾ 마침내 순조 5년에 병신년(정조 즉위년)의 예에 따라 조조의 의절을 마련하지 말 것이 하교되었지만³⁹⁾ 조조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 상장례에서 완결된 결론이 아니라 언제라도 재론되어 의정되어야 할 미비된 현실로서 남은 것이다. 순조 21년, 왕대비의 국장 과정에서 예조 판서 金魯敬(1766~1837)이 헌의한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낸다.

“조조의 의식 절차가 『오례의』에는 기록된 바가 없고 『상례보편』에는 ‘神帛으로

37) 『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7월 庚寅(21일).

38) 『純祖實錄』 권1, 즉위년 8월 庚午(20일).

39) 『純祖實錄』 권7, 순조 5년 3월 戊戌(14일).

예를 행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병신년(정조 즉위년)에 대신과 유신에게 널리 물어 본 뒤에 『오례의』에 의하여 거행하였기 때문에 경신년(정조 24년), 을축년(순조 5년), 을해년(순조 15년)에도 모두 예조에서 병신년에 이미 행한 사례에 의거하여 여쭙어 보기만 하고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하여 거행하겠습니다.”⁴⁰⁾

결국 정조 즉위년 이후로 순조 21년까지 『상례보편』의 조조의의 실행 여부는 매번 문의를 거쳐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조의가 상장례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의례 절차이므로 의식면에서 현실적으로 구차하고 어렵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고례의 禮意를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상장례에서 중대한 의례 절차인 만큼 구차하고 왜곡된 의식 형태는 고례의 禮意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서 표류한 채 보류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의는 『상례보편』과 『춘관통고』와 같은 전례서에 의주가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실행은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장의 실제 실행 과정을 담고 있는 儀軌의 기록을 통해서 그 시기 국장의 의례의 실제적인 실행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조사 대상 의례는 조조의의 의주가 議定된 영조 33년에서 조조의 논의가 재연되고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정조대까지에 간행된 규장각소장 國葬都監儀軌와 殯殿魂殿都監儀軌이다.

3. 규장각소장 國葬·殯殿都監儀軌에서 본 朝祖儀 실행 논의의 결과

왕과 왕비가 승하하여 국상이 나면 국장을 지휘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국장을 준비하고 차례대로 치러간다. 국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빈전에 안치하였다가 5개월이 되어 장지에 매장하고 매장 후에 신주[虞主]를 魂殿에 모시는 과정까지는 殯殿魂殿都監, 國葬都監, 山陵都監의 三都監이 담당하였다. 빈전도감은 시신을 수습하여 시신을 모시는 빈전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였고 혼전도감은 신주를 모실 혼전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였는데 관장하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기도 한다. 국장도감은 국장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발인하여 장지까지 가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왕세자 등이 승하하면 예장도감을 설치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산릉도

40) 『純祖實錄』 권23, 순조 21년 5월 甲戌(25일).

감은 장지를 택하고 능을 조성하는 일체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들 도감의 업무는 자세히 기록해두었다가 각 도감별로 정리하여 발인이 끝나면서 儀軌로 제작하였는데, 殯殿魂殿都監儀軌,⁴¹⁾ 國葬都監儀軌(禮葬都監儀軌), 山陵都監儀軌가 그것이다. 따라서 朝祖儀가 포함되는 발인을 전후한 의례 절차에 대한 기록은 殯殿都監儀軌와 國葬都監儀軌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빈전혼전도감은 장서각과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본을 합한 현존 빈전혼전도감 전체 49종 가운데 45종, 현존 국장도감의례(예장도감 포함) 전체 47종 가운데 41종이다.⁴²⁾ 이 가운데 영조 33년에서 정조 10년 사이에 편찬된 빈전도감의례와 국장도감의례는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貞聖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영조 33년),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영조 33년),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思悼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영조 38년), [英祖]殯殿都監儀軌,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정조 즉위년),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文孝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정조 10년)의 10종이 해당된다.

의례는 각각의 의례마다 세부적인 出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都廳儀軌, 一房儀軌, 二房儀軌, 三房儀軌, 別工作儀軌 등으로 구성된다. 도청은 도감의 일을 총괄하는 중심 부서로서, 도청의례에는 역시 각 의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례 일정을 기록한 時日, 도감의 구성원인들의 명부를 적은 座目, 행사의 운영 규칙을 적은 事目, 장례 의식 절차를 적은 儀註, 국왕의 전교들을 정리한 承傳秩, 도감 등에서 올린 계사들을 정리한 啓辭秩, 각 관청에 협조 요청 공문들을 정리하거나 도감에서 소용될 자재와 각방에서 차출된 員役 및 工匠의 구성, 지급할 급료등을 정리한 稟目秩, 각 하급관청에 지시한 공문들을 정리한 甘結秩, 移文秩, 국장의 여러 의식 절차와 관련하여 예조에서 도감에 보낸 관문을 정리한 禮關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발인을 전후하여 거행된 의식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의례의 도청의례 儀註 기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상기한 10종의 의례 가운데 도청의례의 의주 목차들이다.

41) 빈전혼전도감은 빈전도감의례와 혼전도감의례로 분리되어 편찬되기도 하다가 정조대에 와서 빈전혼전도감으로 합록되는 경향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빈전혼전도감의례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는 이경구, 2005 『국왕 및 왕비의 昇遐와 殯殿魂殿都監儀軌』,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69-84면 참조.

42) 『규장각소장 儀軌 종합목록』의 『분야별 儀軌 목록』 〈國葬〉 분야에는 42종(전체 48종)으로 되어있으나 [文孝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가 중복되어 실려 있기 때문에 41종(전체 47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례 명	서지	都廳儀軌 儀註 목차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奎13590	復儀-殿下舉哀儀-沐浴儀-奠儀-爲位哭儀-舉臨儀-含儀-銘旌儀-小斂儀-小斂奠儀-大斂儀-大斂奠-成殯-廬次儀-成服儀-朝夕哭奠及上食儀-朔望奠儀
[貞聖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奎13589	諡冊寶內入儀-贈諡冊寶儀-啓殯儀-祖奠儀-遣奠儀-發引儀-路祭儀-遷奠儀-立主奠儀-返虞儀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奎13559	復儀-易服不食儀-沐浴儀-襲儀-襲奠儀-爲位哭儀-舉臨儀-含儀-靈座儀-銘旌儀-小斂儀-小斂奠儀-治芻儀-大斂儀-大斂奠儀-成殯儀-成殯奠儀-廬次儀-服制條-成服儀-朝夕哭奠及上食儀-朔望奠儀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奎13557 ⁴³⁾	諡冊寶內入儀-請諡宗廟儀-上諡殯殿儀-啓殯儀-祖奠儀-遣奠儀-發引儀-路祭儀-遷奠儀-立主奠儀-返虞儀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奎13606	復儀-沐浴儀-襲儀-襲後奠儀-爲位哭儀-設水儀-靈寢儀-銘旌儀-小斂儀-大斂儀-成殯儀-朝夕哭奠及上食儀-朔望奠儀-服制儀
[思悼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奎13605	諡印詣 殯宮內入儀-發引儀-路祭儀-遷奠儀-返虞儀
[英祖]殯殿都監儀軌	奎13583	初終儀-復儀-奠儀-易服不食儀-沐浴儀-襲儀-奠儀-爲位哭儀-舉臨儀-含儀-設水儀-靈座銘旌儀-小斂儀-奠儀-治芻儀-大斂儀-奠儀-成殯儀-奠儀-廬次儀-成服儀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	奎13581	上諡冊寶儀-啓殯儀-遣奠儀-發引儀-路祭儀-遷奠儀-立虞主奠儀-返虞儀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奎13922	復儀-襲儀-小斂奠儀舉哀如儀-設影幀-銘旌式-이빈-大斂-成殯奠舉哀如儀
[文孝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奎13921	賜諡宣敎儀-賜諡殯宮儀-啓殯儀-祖奠儀-遣奠儀-發引儀-路祭儀-遷奠儀-立主奠儀-返虞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조의 의주가 의정된 영조 33년에 두 차례의 국상이 있었다. 정성왕후의 발인이 6월에 있었고 이어서 인원왕후의 발인이 7월에 거행되었다. 영조가 인원왕후의 7월 인산 때에 조조의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

43) 奎13557은 현재 규장각 서지사항에 『[仁元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로 되어 있고,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목록』 139쪽에도 [仁元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로 되어 있으나 검토 결과, 실제 내용은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이다.

하면서 조조의례를 의정한 것이 10월이므로 두 왕후의 국장이 모두 『국조오례의』의 국장 의례를 따라서 啓殯 후에 조조의례도 하지 않고 祖奠儀를 거행한 뒤에 마지막 전을 올리는 遣奠儀를 거쳐 발인을 거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영조의 국장을 준비하면서 정조가 조조의례를 『오례의』대로 할 것을 의정한 것이 7월 21일이고 영조의 발인이 7월 27일이었다. 따라서 영조의 국장 또한 계빈 후에 조조의례 없이 견전의례를 거행하고 발인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조전의례가 빠져있는 것이 『오례의』와 다르다. 의궤 기록에서 생략한 것일지 모르나, 어쩌면 조조의례를 둘러싼 예학적 논의를 통해 조조의례 없는 조전의례의 문제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조의례와 함께 조전의례까지 행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조 10년에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가 5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예장을 거행하였는데, 역시 『오례의』를 준행하여 조조의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계빈의와 견전의 사이에 다시 조전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조 재위 기간 내내 조조의례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세자의 장례 절차는 영조의 의지대로 의정된 조조의례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죽음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예장의 절차도 정상적인 과정을 모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계빈의 이후의 절차가 보이지 않고 諡印을 殯宮에 들이는 의식 이후에 바로 發引儀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계빈과 조조, 조전, 견전으로 이어지는 의식 절차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영조의 의지대로 조조의례가 『국조상례보편』에서 관철되고 그 시행을 명하였으리 정조 12년에 편찬된 『춘관통고』에서도 『상례보편』의 조조의례가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시대 국장의례는 그 전 시기에 걸쳐서 조조의례가 한 차례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거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조선시대 朝祖儀의 실행 문제는 국가전례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국장의례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古禮와 관련된 예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상장례의 올바른 禮意를 구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충분히 연구,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할 주제이다. 조조의 실행 논의에서도 구심점이 되고 있는 ‘古

禮의 이념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는 조선시대 예학 발전에 있어서 국가전례를 표준 양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준거 지점으로서, 국가전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이후 예송으로 이어지는 전례논쟁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방면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촉구된다.

조조의는 죽은 자가 종묘에 가서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인사를 올리는 의례로서 『儀禮』, 『禮記』 등의 古禮 경전과 『朱子家禮』 등에 기록된, 유교적 喪葬禮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國制인 『국조오례의』 등의 전례서에서 제외되었다가 영조 33년에 증편한 『國朝喪禮補編』에서야 비로소 국장의례에 편입된다.

『國朝喪禮補編』에의 등재는 이미 효종대부터 시작된 조조의에 대한 논의들에 근거한 것으로, 효종 원년에 金集은 『儀禮』, 『禮記』 등의 古禮 經文을 근거로 조조의의 古禮적 형태와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禮意를 밝히고, 상장례의 큰 절목인 조조의를 제도로써 실행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시대 조조의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그는 조조의 없이 계빈의에서 조전의로 이어지는 국장의례가 나아감은 있으나 물러남은 없는 喪事의 禮意를 어기는 공간 이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조선시대 국장의례에서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비록 고대 중국과 달라진 의례 공간으로 인해 고례를 그대로 준행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효종대의 논의는 일단락되었으나, 조조이가 국장의례에서 차지하는 예학적 의미와 위상을 밝히고 그 실행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이후 고례의 이념을 준거로한 국가전례에 대한 개혁과 보완이 계속되어, 國制의 표준적 양식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식수준을 확인, 성숙시켜간다.

영조대에는 조조의를 조선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제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결국 영조는 『大明會典』과 丘濬의 『文公家禮儀節』을 근거로, 재궁은 빈전에 그대로 두고 신백만이 재궁을 대신하여 종묘에 謁辭하는 절충적 방식의 조조의를 議定하여 『상례보편』에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절충안이 갖는 苟艱함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조선시대 상장례에서 결여되었던 조조이의 의주를 마련하고 그 실행의 근거를 마련한 데에는, 시행 상에서 야기되는 의절의 순편치 못함은 조조이가 구현하고자 하는 情理의 根幹에 비해 작은 일이라는 그의 신념과 예학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예제 제정의 전거를 위해 중국의 조정 의례와 주자가례의 해석 등을 차용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준거는 古禮의 禮意인 점에서 효종대의 국제 개정 논의의 이념적 방향이 일관되고 있다.

정조대에는 외견상 조조의 실행의 무산이라는 퇴행적 귀결과 이론상의 풍부한 성과라는 이중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조는 영조대의 조조의 문제가 구차한 의절로 귀결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요구함으로써, 결국 조조의 논의는 조조의와 발인의를 같은 날에 시행한 『大明會典』 祖禮의 오류와 사세의 편의만을 좇아 고례의 예의를 어그러뜨린 『文公家禮儀節』의 오류를 비판하기까지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고례의 이념을 준거로 중국 조정 의례의 非禮적 측면을 비판하여 초기처럼 중국 예제가 무조건 국제의 준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주체적인 의식과, 가례와 국가전례를 구분하고자하는 경계와 비판의식은 물론 논의의 최종 준거인 고례 자체의 영역에 대한 유연한 인식 등 예학상 의미 깊은 논의들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결국 전례의 실행에 있어서는 영조가 마련한 조조의의 준거가 비판됨으로써 정조는 『상례보편』의 조조의 대신 『오례의』에 따라 상례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중차대한 예법을 잘못된 근거에 의해 마련된 구차한 의절로 시행할 수 없다는 원론을 견지한 것이지만, 새로운 고례적 기준과 『가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다양한 조조의 논의들이 중단되고 조조의 없는 국장으로 회귀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조선 후기에 집중된 조조의 실행을 둘러싼 의미깊은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결정 이후로 조선시대 국장의례는 매번 조조의의 실행 여부를 재 의정해야 하는 미비된 현실로 남았다. 조조의가 의정되던 시기에 편찬된 國葬都監儀軌와 殯殿魂殿都監儀軌의 기록은 국가전례서에 조조의가 등재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조선시대 국장의례에서 조조의는 한 차례도 실행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

朝祖儀의 실행을 둘러싼 議定의 과정과 결과는, 古禮의 회복과 그 현재적 적용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중국예제와의 상관성과 국조의례로서의 주체적 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던 당대의 예학적 노력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완으로 귀결된 조조의 실행의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국가전례 개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한데, 이는 조선시대 국장의례의 예학적 완성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로 이어지는 문제이며 이후 이어지는 전례논쟁들과 고례 정신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春官通考』

『世宗莊憲大王實錄』 『五禮』

『孝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喪禮補編』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貞聖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思悼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英祖]殯殿都監儀軌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文孝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增補文獻備考』

『開元禮』

『明集禮』

『大明會典』

『儀禮』

『禮記』

『朱子家禮』

丘濬, 『文公家禮儀節』

鄭玉子 外, 2005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 韓永愚 外, 2002 『규장각소장 儀軌 종합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 李俸珪, 1998 『金長生·金集의 禮學과 元宗追崇論爭의 철학사적 의미』 『韓國思想史學』 제11집.
- 李範稷, 1991 『愼獨齋의 國家典禮와 그 思想』 『愼獨齋思想研究』, 沙溪·愼獨齋兩先生記念事業會.
- 韓基範, 1991 『愼獨齋의 禮設 禮學思想』 『愼獨齋思想研究』, 沙溪·愼獨齋兩先生記念事業會.

Abstract

Discussions on Implementing Jojoui in Joseon Dynasty State Funeral and their Results

Pak, Rye-gyong

In state funerals of Joseon Dynasty, Jojoui was the rite of moving a dead body to the ancestral shrine of the royal family and bidding farewell to ancestors. Although it was recorded in the sacred books of ancient rites such as *Ili* and *Liji*, as well as in *Zhuxijiali* Jujagarye, and it possessed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Confucian mourning funeral, it was nevertheless excluded in the ritual books such as *Gukjo-oryeui*, which listed the state system, and was inserted into the state funeral rites for the first time only in *Gukjosangrye Bopyeon*, a supplement book of the state funeral rites that was edited in the 33rd year of King Yeongjo's reign. What was recorded in *Gukjosangrye Bopyeon* was based on the discussions regarding jojoui which had already started from the time of King Hyojong, and Gimjip argued for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jojoui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sacred books of ancient rites such as *Uirye* and *Yegi*, thus bringing about an active discussion of jojoui. Finally in King Yeongjo's reign, a jojoui with a compromise in which not the corpse but only shinbaek, a white silk bundle which carried the spirit of the dead, went to the ancestral shrine of the royal family for bidding farewell to ancestors, and it was recorded in *sangrye Bopyeon*.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however, active discussions on the principles of ancient rites and decorum resurfaced, and in the end, the implementation of jojoui went back to its original practice. Afterwards, the state funeral rites in Joseon Dynasty remained an inadequate reality where each time there had to be discussions and decisions made on whether to carry out jojoui or not, and the records in *Gukjangdogam-uigwe* and *Binjeon-honjeondogam-ugwe* show that, in reality, jojoui was not carried out, not even once, during the state funeral rites in Joseon Dynasty. In spite

of that, the discussions on carrying out jojoui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index in the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of decorum in late Joseon Dynasty, which showed that a level of independent awareness had matured enough to be able to establish a standard form of state system.

Keywords: mourning funeral, state ceremony, jojoui, starting of a funeral procession, ancient rites, Gimjip